

선거철 민폐 ‘초대형 현수막’ 논란

건물 전체 뒤덮여 입주자 조망권·영업권 등 침해 동의 없어도 설치 가능...자치구 “규제 방법 없어”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설 명절이 맞물리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 예비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건물 전체를 뒤덮는 초대형 현수막들이 등장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건물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당 공천을 앞둔 예비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라 이해는 되지만,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초대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우후죽순 내걸리면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22일 오후 광주 서구 운천로의 금호지구 입구 사거리.

인근에 중학교와 대형 병원 등이 들어선 이곳 한 건물에는 한 예비후보자의 얼굴이 나온 대형 현수막과 이력이 빼곡하게 적힌 가로형 현수막, 옥상을 넘어서 설치된 홍보물 등으로 뒤덮여 있었다.

같은 시간 서구 회재로의 풍양지구 입구 사거리에도 건물보다 높게 설치된 간이 보조물에 문구가 적힌 현수막부터 얼굴과 이름을 강조한 현수막이 건물의 2

층 전체와 측면에 설치돼 있었다.

이들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들을 들어 가보니 창문이 모두 현수막에 가려 건물 밖을 볼 수 없었다.

해당 건물 입주자들은 괜히 이런 문제로 불평을 제기해봤자 건물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권리행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초대형 선거 현수막이 내걸린 건물에 입주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45)씨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안그래도 2층에서 영업하고

있어 간판이 잘 보여야 하는데, 느닷없이 걸린 현수막 때문에 간판이 가려져 손님이 못 찾겠다”는 불평의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건물 좌·우 외벽과 창문을 모두 가리고 있어 자칫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박모(67)씨는 “병원 치료를 받는데 창문에 느닷없는 사람 눈이 보여서 깜짝 놀랐다”면서 “환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는 곳에는 설치를 고려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로 신

고된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정돼 있을 뿐 현수막 규격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전무하다.

예비후보와 건물주 사이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설치를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또한 같은 건물을 쓰는 입주민이나 근로자들의 조망권·일조권 등 권리를 침해해도 구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선 자치구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둔 데다 설 명절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계 등에서 초대형 선거 현수막 외에도 설 인사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우리로서도 난감한 점이 많다”면서 “광고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 양쪽이 합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곤혹한 변명을 내놨다. /오승지기자

‘자동차 공회전 그만’ 영산강환경청 캠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2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에서 광주시,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등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자동차 공회전 그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 자치구,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유스퀘어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광주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 등 공회전 제도와 설 명절 대기동 기간 ‘가속, 과적은 NO, 친환경은전승관 지키기’ 등을 홍보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송정역, 아사아문화전당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며 “저녹스보일러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홍보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22일 오전 서구 관촌중터미널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시와 자치구, 미세먼지 안전시민실천본부 관계자들이 달라진 공회전 제도와 대기환경보전 조례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김예리기자

사용,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한 시기

동거녀 사망 신고하다 덜미...마약 3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B씨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황설수실

소형 어선 압해대교 교각 충돌 선장 숨져

조업을 위해 출항하던 어선이 교각을 들이받아 선장이 숨졌다.

22일 오전 3시50분께 신안군 압해읍 압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의 조난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1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2.7t급 유자망 어선 A호와 그 안에서 피를 흘린 채 홀로 쓰러져 있는 선장 B(62)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B씨가 목포 북항 선착장에서 조업을 위해 홀로 출항한 뒤 항해 중 교각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안=양홍기자

주행하던 BMW 차량서 또 불

지난해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랐던 BMW 차량 모델에서 또다시 불이 났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광주 남구 행안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BMW X5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엔진룸과 보닛 일부를 태웠지만,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동수기자

“왜 나한테 수갑을 채워?”

“...동거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협박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서행.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2)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복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깨진 술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동거녀와 경찰관 2명을 위협하고, B(54)씨는 A씨가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목을 움켜잡고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의 행패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폭언하며 해코지했고, B씨는 ‘왜 수갑을 채우냐’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일침. /최환준기자

80년 5월 당시 실종 시민 다시 찾는다

5·18기념재단, 내달 1일까지 옛 광주교도소 일대 발굴조사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시민들을 찾기 위한 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개토제와 조사계획 브리핑을 시작으로 2월1일까지 옛 광주교도소 교도대 북쪽 일원 2천888㎡ 발굴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해 12월19일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위해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이장 중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조사는 지난 2017년 옛 광주교도소 압매장 발굴조사(1~4차)에 참여한 재단법인 대한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진행한다.

1~2일 차에는 주변 정리 및 안전보안 시설물을 설치하고, 3~4일 차엔 트랜지

조사를 실시, 5일 차에는 원상 복구한다. 이후 4일 간 자료회의를 열어 향후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발굴(시굴)조사는 학술조사처럼 정교하고 품위 있게 진행되며, 유해(유골)매장의 역순으로 온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유해(유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며, 유해(유골)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수습한다. 특히, 5·18 진실규명 차원에서

복원과 보존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상시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기념재단은 유해(유골) 등 압매장과 관련된 물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경찰, 관련 전문가(고고학자, 법의학자, 치의학자, 형질인류학자 등), 5·18민주유공자단체대표, 유관기관 등과 상시 협의 체계를 유지·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진행 사진 등 자료는 기간 중 매일 오후 3시까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도 2월3일부터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 자료 확보에 나선다. /최환준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 공증 · 공사대금 · 각서 · 운송료
차용증 · 거래장부 · 계약서 · 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없음 ◀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영업직
신입 · 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후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 · 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

公認家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 구분 | 광주여자대학교(30기) | 광주교육대학교(21기) |
|------------|--|---|
| 모집/과정 | · 금요일 오전반 :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 2020. 3. 7.(토) 09:10 (고급반) | · 금요일 오후반 :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 2020. 3. 7.(토) 14:10 (고급반) |
| 모집기간 | 2020. 1. 23(목)~3. 7(토) | |
| 수업기간 | 2020. 3. 6(금)~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 |
| 수업시간 |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
| 수료후 특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 |
|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 |